

2020년 12월 1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출진흥과 과 장 김재형(044-201-2171), 사무관 한기연(2176) / 제공일: 12월 10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싱가폴 수출 딸기 전용 항공기 띄운다

- (주)케이베리 · 대한항공 ·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 업무협약 체결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운송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기 수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, 대한항공과의 협업을 통해 싱가포르 수출 딸기 전용 항공기를 띄우기로 하였으며, 이를 위해 다자간((주)케이베리·대한항공·aT)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힘

○ 일시/장소 : 2020.12.11.(금), 11:00~13:00/ 서울 aT센터

* 참석자 : 농식품부, (주)케이베리(딸기 수출통합조직, K-berry), 대한항공, aT, 딸기 수출업체 등 16명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딸기 주요 수출국인 싱가포르 항공기 운항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 딸기의 수출을 위한 항공화물 적재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대한항공과 협업을 통해 전용 항공기를 띄우기로 하였다.

○ 이를 위해 2020년 12월 11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·(주)케이베리(딸기 수출통합조직, K-berry)·대한항공 3개사가 참여하여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- 주요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, 국내 딸기 수출을 대표하는 수출 통합조직인 (주)케이베리는 고품질 딸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등 품질관리에 힘쓰고,
 -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딸기 전용 항공기의 정기 운영 및 향후 타 국가로의 노선확대 추진을 담당하기로 하였다.
 -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는 공공기관으로써 참여사 관리 및 수출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.
-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항공은 항공업계 최초로 딸기가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12월 둘째주부터 내년 4월까지 한국산 딸기의 수요가 많은 싱가포르에 주 4회 딸기 전용 항공기를 투입하게 된다.
 - 싱가포르 딸기 전용 항공기는 12월 11일에 첫 출항 한다.
 - * 전체 약 80회 운영(주 4회 × 20주), 약 1,072t 수출 목표
- 농식품부는 그동안 딸기 수출 확대를 위해 선박시범 수출*, 신선도 연장(7일→15일) 기술개발 등을 지속 추진해왔으며,
 - * 딸기 수출물량의 약 99%가 항공으로 운송되어, 물류비 저감 등을 위해 선박수출 확대 방안 검토
 - 주요 수출대상국을 중심으로 온라인·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.
-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“코로나19 장기화로 딸기 수출 농가·업체들이 어려움이 많은데, 이번 업무협약으로 싱가포르 수출 하늘길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”며
 - “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